

“연내 종전선언 가능”... 북핵 ‘빅딜’ 주목

문대통령 폭스뉴스와 인터뷰 “미국 상응조치 팬 비핵화 속도”
트럼프 “대답하고 새로운 평화” ... 대북 패러다임 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비핵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니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면 미국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기정사실화 되면서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흐름이 형성되자 연내 종전선언에 무게를 실으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각각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약속이)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북한 역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궤도 이탈 가능성에도 분명한 간접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명령’을 ‘대답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발(發) ‘플러스알파(+α)’를 전달받은 데 대한 ‘화답’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 취임 후 유엔 무대 데뷔전이었던 1

년 전 같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조롱,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며 ‘완전한 파괴’를 거론하는 등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에 비춰보면 180도의 급반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쟁의 명령을 평화를 향한 대답하고 새로운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협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70년간 이어져

온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인 ‘종전선언’에 대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두고 핵 리스트 제출 등 아직 미국이 원하는 ‘여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결국,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실천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빅딜은 두 정상 사이 조만간 다시 마주 앉게 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통 큰 담판”을 통해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뒤로 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의제 ‘건설 찬반’ 문기로

건설 확정 후 방식 논의하다
건설 여부 묻는 것으로 후퇴
결정 절차 반복 후폭풍 클 듯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의제는 ‘건설 찬반’(찬성과 반대)을 묻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론화 의제를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했으나, 상당한 후폭풍도 예

상된다.

광주시는 당초 2호선 건설을 확정하되 현재의 저상도 건설 방식에 대해 재정, 안전성, 기술성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향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마찰-갈등이 예상되는 지역 중요사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미루고 시민 여론에 묻는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를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 규모는 2500명을 상대로 1차 표본조사를 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을 비롯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참여단은 250명 내외로 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는 250명에게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설문조사는 2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의제 ‘건설 찬반’으로 간단하고, 학술적인 것이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1차 조사는 2500명 표본조사할 때, 2차 조사는 속의 프로그램 완료 후 하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28일 열여 설문지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방식과 공론화 의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주요 결정은 이뤄졌다”며 “최대한 노력해 공론화 전 과정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북 정상처럼...” 광주 도보다리 인기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재현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제를 모았던 도보다리 위에서 일가족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한일정상회담, 아베에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국내에서 재단의 해산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현실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한국)정부가(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제징용 소송 건은 삼권분립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부탁한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용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보육시설서 지옥같은 10년 보냈다”
- 광주 한 여대생 눈물의 하소연 ▶6면
KIA 가을야구 이번주 결판낸다
- ‘5위 싸움’ LG와 잠실 2연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인화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o. 광주은행

이기쁨 대리님께

[실제 고객님의 보내주신 칭찬 메시지 사연입니다]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

최근 금전적인 문제들로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았는데 매번 은행에 갈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준 대리님 덕분에 맘 편히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고,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신
광주은행 이기쁨 대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광주은행

2018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명은행 부문 1위
주최: 한국능률협회컨설팅